

# 양계산업의 기능분담론

이 인 형

농림수산부 중소기업과장

## 1. 머리말

닭은 60~7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에서 부산물을 이용한 부업농가가 많았으나 축산물소비의 대중화가 되면서 점차 전기업화 되고 있다. 농가 부업형태의 경우에는 종란의 생산과 부화 사료구입 등은 자급자족 등 자체 해결이 불가피 하였던 것이나 사육규모가 점차 커지고 전문화 되면서 양계분야도 종계업, 부화업, 도계업, 가공 등 다양하게 분화 되고 있다. 이러한 분업체제의 변화는 양계업이 이제는 개별적인 단독의 형태에서 공동사업체로서의 유기적인 성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양계업은 자기 개인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농가와 기타 관련된 모든 업종에까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계업은 어느 한분야만이 앞서간다고 해서 발전 될 수 없는 것이요 모두가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다 할때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독일의 생물학자 "리비히"가 주장 하는 "최소량의 법칙" 을 양계분야에 응용해 볼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양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중 한가지라도 부족(제한)되는 것이 있으면 이에 따라 좌우 된다는 자연의 진리가 양계에도 적용 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화장은 나름대로 우량한 병아리의 적정량을 생산 공급해 주고 사육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생산비 절감과 적정규모의 사육수수를 유지하고 정부에서는 민간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줄

시책을 마련하는 등 각자의 기능 분담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평소의 소견을 제시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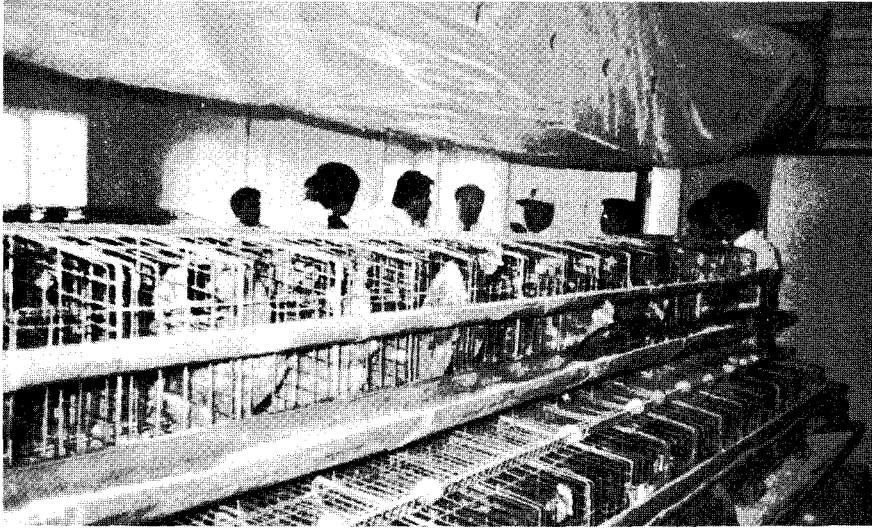
## 2. 민간주도의 기능과 역할

### 가. 자율적인 생산조절 기반 구축

육계는 출하기간이 점차 짧아져 40~50일이면 출하가 가능하여 예년의 경우를 보면 여름철 성수기에는 병아리 사육수도 크게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고 닭값이 떨어지면 입식수수를 줄여 가격도 다시 회복되는 자율적인 조절이 되어오곤 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를 보면 상반기중 호황으로 축적한 재원으로 시설능력을 크게 늘이고 너도 나도 병아리 입식을 희망하여 병아리값을 자극 400원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기현상을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육계가격의 큰하락으로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농가는 육계가 불황시, 떨어진 병아리 값으로 사육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각기 나름대로의 편견으로 불황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양계업은 사육조절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시행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양계업의 전망을 누구 보다는 잘알면서도 병아리나 사료의 판매 욕망 때문에 입식을 잘못 권유하고 다니는 부화업자나 사료업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또한 일부 부화업자는 종계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양계생산물이 생산만 하면 소비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계획적인 생산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우까지 시켜가며 병아리 생산에만 몰두하는 자세도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8월중에 부화업체에서는 육계업안정을 위하여 가격이 회복될 때 까지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입란수를 40%이상 감축하자고 자율결의 해 놓고 얼마나 이행 하였는지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육계 생산농가는 생산에 전념하다 보면 정보가 어두어 올바른 관념을 갖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나 양계에 관련한 부화, 종계, 사료업체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양심이 필요한 것이다.

육계업은 어차피 공동운명체 속에 살고 있는 것인 만큼 양계 농가가 망하면 이들도 곧 사업자원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상호 연관된 업종끼리 지도하고 협력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일은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활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어야 한다.

양계산물은 과거와 같이 생산만 한다 해서 소비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생산만 해놓으면 팔릴 것이고 남으면 정부에서 수매나 비축해 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계획적인 생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화장, 사료업체, 도계업체, 육가공장 등이 주체가 되어 자재를 공급해 주고 농가는 사육시설과 인건비를 부담하여 생산만 하면 계열주체에서 전량 수매하여 판매처리 하는 계열사업이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계열주체에서 생산,

처리, 판매 등 경영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으로 우리나라 여건과 같은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있겠으나 참여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계열주체의 경영기술 능력을 발휘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며 실제로 5~6개업체가 계열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

양계규모가 점차 대규모화 되고 있는 현상은 양계산물의 수요량이 증가된데 원인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위당 수익성이 점차 낮아져 대규모화 하여야만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도 큰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중 한국가금학회에서 개최한 바 있는 「수입개방에 대처한 한국양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산란계의 경우 계사내의 온도조절, 사료급이개선 사료 저장관리 등을 개선하면 산란기간 500일중 수당 3.34kg(694원)를 절감할 수 있으며 10천수를 사육 할 시 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계사시설 및 사양관리의 자동기계시설과 닭능력개량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문이 상당히 많다. 우리의 경제가 적자교역국에서 흑자교역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의 문호개방압력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아 우리 양계분야도 계속해서 보호주의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계업은 단위당 생산성제고와 생산비 저하등 국제경쟁력 제

“현재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자 단체나 각종모임이 제각기 난립되어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단체들을 한데 뭉쳐 통일된 의견수렴을 위해 단합해야 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물론 시책적인 뒷바침 보다는 양계인 스스로가 분담해야 할 기능중의 하나라고 본다.

#### 다. 양축농가의 자주적 조직 기능 강화

다른산업보다 1차산업에 속해 있는 농업분야는 영세한 다수의 농가에서 사업에 참여하므로 인하여 개개인의 활동으로는 다른 산업과 대항하기 힘들며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조직체계가 미비하므로 인한 손실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양계산물은 집하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공판기능도 없으므로 중간상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가격 결정도 상인이 주도하게 되므로써 애써 생산한 농민의 이익보다는 중간상인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계업도 이제는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 생산자재의 공동구입과 생산물의 공동 판매 기능을 갖출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현재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자 단체나 각종모임도 제각기 난립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한데 합쳐 통일된 의견이 수립되고 공통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라. 양계산물의 소비저변 확대

양계산물은 계절적으로 소비량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가격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계산물 소비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대중식품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닭고기는 연중 어느 때나 많이 먹고 있으며 그양도 우리나라의 5~10배이상 달하고 있어 우리는 아직 소비량을 지금의 몇배라도 늘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양계산물소비는 다른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과 소비의 경합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는 어느 한가지만 편중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양계산물은 정부차원에서 해주길 기대하는 것 보다는 생산자 자신이 앞장서 나서야 한다. 따라서 이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요, 생산자들의 협동조직체나 단체를 통하여 추진하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뒷받침이 되도록 협력하여야만 될 것이다.

근래에 들어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에서 회원들이 자조활동에 의거 요리강습회, 신문잡지 등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 하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제한된 업체만이 참여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양계산물의 소비 확대는 결과적으로 그 효과가 전체 양계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사료산업이나 기타 관련 산업의 육성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관련산업 전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한다는 의식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정부의 역할

#### 가. 수급조절 기능

현행 축산법 규정은 부화업, 종계업과 양계업에 대하여 허가나 등록을 하도록 하므로써 이들 업체로 하여금 생산조절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경제활동이 규제행정에서 점차 자유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하에서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양계업은 그 소비 기반이 뒤따르지 못하고,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조절시책은 불가피 하다고 본다.

양계업에 대한 생산조절시책은 호주, 캐나다 등지에

서도 시행되고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생산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 요인이 되어 소비자의 불만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의 수급조절 기능은 양계산물의 생산과 소비 등의 정확한 수급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양계농가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고 무등록 무허가 업체를 철저히 단속해주고, 종계의 수급조절을 위한 적정량의 수입조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부화장의 적당한 병아리 생산통계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종계업체의 종계보유조사가 정확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계 일반검정을 더욱 강화시켜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언제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양계관련 업체가 자율적인 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유통시설 확충

양계산업의 생산능력이나 규모화는 어느 축종보다 앞서고 있으나 유통시설은 전근대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양계업은 본래 저장성이 약하고 취급이 간편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오랫동안 상인위주의 유통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격결정이나 물건의 판매가 생산자 의사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항상 불리한 입장에서 있다.

양계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면서도 과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양계산물 공판장이나 집하시설 등 유통시설에는 막대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소요되므로 생산자들은 감히 손을 못쓰고 있는 것 같다.

유통시설의 개선은 생산자측면에서는 적정가격을 보장받고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줄여 값싸게 공급하게 되므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게 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역할이라고 본다.

#### 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사료자원의 자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간 상당기간동안 각종세제나 자금지원 등의 시책이 추진되었고 축산물이나 가축의 수입제한 등 보호산업으로 육성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들면서 우리의 경제여건의 변화로 수출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문화개방 압력이 드세게 일고 있으며 언젠가는 축산물의 보호장벽도 무너지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양계농가에서는 나름대로 사양기술과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사료원료의 수입과 배합사료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제 개선과 수입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계농가에 대한 각종 시설의 기계화 설치와 경영개선키도 등의 행정지도 활동도 더욱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 라. 우량종계의 보급

최근 양계농가의 대부분 닭은 수입종에서 생산된 닭을 사육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수입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국내에서도 종계의 개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이 소요되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벼나 보리 등 종자개량을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듯이 축산분야에서도 종자개량을 위한 육종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시책이 뒤따라야 할 기능이라고 본다.

또한 수입되는 종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과 능력을 검정하여 국내에서 개발되는 종계의 능력 보다 낮거나 비슷할 경우에는 국산종계 육성 차원에서 수입을 과감히 제한하는 시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 4. 맺는 말

이제 양계업은 공동 운명체 속에서 전업화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각기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영영 영속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할 기능 역할 분담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주장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버리고 맡은 바 자기 역할 분담을 충실히 지키고 눈을 크게 뜨고 밖을 내다 보며 현재의 인내를 내일의 이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양계**